

## 11. 부자를 위한 복음

(눅 12:13-24; 14:16-24; 15:11-32; 16:19-31; 18:18-30)

※ 오늘의 포인트

1. 누가 공동체의 구성원들
2. 부자들에 대한 비판
  - (1) 재물의 축적
  - (2) 재물의 낭비
  - (3) 재물의 집착
3. 부자들에 대한 목회적 권면

누가복음의 별칭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과연 누가복음은 오로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복음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분명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오직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구주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의 교훈과 사역의 성격과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번 장의 주제가 된다.

사실 누가복음은 이제까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명제 아래 해방신학의 좋은 교본(敎本; textbook)이 되어 왔다. 특히 누가복음 4장 18절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란 구절은 그들의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가 되었다. 그러나,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복음이 오직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전 인류를 구원할만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복음의 수혜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차별이나 전제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복음에 이처럼 차별이나 전제 조건이 없다면, 이론상 복음은 분명히 부자들을 위한 것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을 새로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 접근을 새로운 접근이라 부르는 것은 이제까지 누가복음은 주로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 1. 누가 공동체의 구성원들

누가복음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누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누가는 일차적으로 그가 속한 신앙공동체(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그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았더라면, 기왕에 마가복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태여 새로이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는지 모른다(이러한 주장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누가가 그 공동체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상황과 그 구성원이 되는 신자들의 형편을 고려에 넣었을 것이란 말이 된다.

그러면 누가 공동체와 그 신자들의 상황과 형편은 어떠했을까? 지면 관계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가 공동체는 마가, 마태공동체와는 달리 임박한 종말론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지 않았으며, 또한 핍박이나 박해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1)</sup>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누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이다. 즉 과연 어떤 사람들이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누가교회를 포함하여 초대교회들의 구성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고전 1:26-29), 대체로 가난하고 힘없고 무식한 사람들, 즉 노동자, 농민, 여자, 노예 등 사회, 경제적으로 바닥계층의 사람들이 주된 구성원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지배적인 견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학자들이 있었는데,<sup>2)</sup> 그들의 주장은 초대교회에서 힘이 있고 부유하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수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그 공동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우세한 소수’(dominant minority)란 표현을 사용한다.<sup>3)</sup>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초대교회 중 하나였던 누가교회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외가 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즉 누가 공동체에는, 동시대의 다른 교회들처럼,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울러 부유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우리는 누가가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결국 누가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과 결부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말한 바 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가난한 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 배경이 되는 공동체 내부에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공동체에 부자들이 존재하였을 것이란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부자를 가리키는 *plou, sioi*(플루시오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좀더 상세하게 말하면, 마태는 이 단어를 세 번(19:23, 24; 27:57), 마가는 두 번(10:25; 12:41)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누가는 모두 열한 번(6:24; 12:16; 14:12; 16:1, 19, 21, 22; 18:23, 25; 19:2; 21:1)이나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누가가 부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로, 누가복음에서 부자들이 보다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자신의 집에서 주님과 그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세리 레위(5:27-29),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을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던 갈릴리 여인들(8:1-3), 자신의 집으로 주님과 그 일행을 초대하여 숙식을 제공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10:38-42), 예리고의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역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삭개오(19:1-10), 공회위원이면서 주님의 시신을 값비싼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무덤에 매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23:50-55)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갈릴리 여인들, 마르다/마리아 자매, 삭개오 등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은 누가가 이 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이 밖에도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도

1) 그러나 물론 이 견해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누가 공동체 역시 마가, 마태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내용을 마가, 마태복음과 비교하면서 면밀히 검토할 때, 이런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참고, 김경진, 『제자도와 청지기도』, pp. 85-90; “사도행전의 설교가 누가 공동체에게 주는 의미”, 『그말씀』 62호 (1997/6), pp. 55-65.

2) E. A. Judge, Gerd Theissen, Wayne Meeks.

3) Theissen, *Social Setting*, pp. 70-73; cf. Meeks, *Urban Christians*, pp. 51-53.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에디오피아 내시(8:26-29),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13:1),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13:7), 베레아의 귀부인과 남자들(17:12), 그리고 바울의 친구로 소개되고 있는 아시아의 관원들(19:31). 이상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누가 공동체 내에 이들에 비견(比肩)할만한 부자들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셋째로, 여기에 추가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답게 재물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자들에 대한 격려와 경고로서 이용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자료들도 누가 공동체 내의 부유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비유 및 기사들이 포함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10:30-37), 어리석은 부자 비유(12:13-21), 불의한 청지기 비유(16:1-13), 부자와 나사로 비유(16:19-31), 큰 잔치 비유(14:16-24), 그리고 삭개오 기사(19:1-10)가 있다. 이 비유들은 모두 누가만의 특별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부자 청년의 기사(18:18-30)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 기사 가운데, “큰 잔치 비유”와 “부자 청년 기사”가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① 큰 잔치 비유와 이에 연결된 예수님의 말씀에서(14:1, 12-24), 우리는 자신을 식사에 초대할 부유한 바리새인에게 한 예수님의 명령은, 누가 공동체 내에 그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 즉 사회적 신분이 비슷한 사람으로서 남의 호의를 되돌려 갚을 수 있는 부자들이 존재하였음에 대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12절).<sup>4)</sup>

② 부자 청년의 기사에 대하여, 마가복음(10:22) 및 마태복음(19:22)과 비교할 때,<sup>5)</sup> 그 관원에 대한 누가의 묘사가 다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그 청년은 마가나 마태복음에서처럼 그 장면으로부터 떠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의 이런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누가 공동체 내에 부유한 신자들이 야기하였을 법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sup>6)</sup>

넷째로, 이 밖에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재물로 구제하라는 명령(12:33; 11:41)과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과 함께 음식과 옷을 나누어 가지라는 명령(3:10-11), 점심이나 저녁 잔치에 전혀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들을 초대하라는 명령(14:13-14) 또한 누가교회 내에 부유한 신자들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든지 아니면 잔치를 베풀어 가난한 거지들을 초대하라는 명령은 전혀 의미가 없다. 즉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의 명령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명령이 소개되고 있는 누가공동체 내에는 부유한 신자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누가 공동체 내에는 가난한 신자들만이 아니라 또한 부유한 신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2. 부자들에 대한 비판

4) cf. Karris, “Poor and Rich”, pp. 120-121.

5) 막 10:22 ο de stugra,saj evpi. tw/ logwl avph/lqen lupoumeno\ h=n gar e'cwn kthmata polla(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 19:22 avkou,saj de. o` neani,skoj to.n lo.gon avph/lqen lupoumeno\ h=n gar e'cwn kthmata polla(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눅 18:23 ο` de. avkou,saj tauta peri,lupoj evgenh,qh\ h=n gar plousioj sfo,dra.(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6) cf. Esler, *Community*, p. 185; Karris, “Poor and Rich”, p. 123. 마살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을 참고하여 가정하기를, 그 부자 관원은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주장한다(*Commentary*, p. 683). 그러나 이 주장은 본문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사실 그 청년은 계속 남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눅 18:24 이하).

만일 이처럼 누가 공동체 내에 부유한 신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이였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공동체의 부자들이 어떠한 위치와 형편에 처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권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서 묘사되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모습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각각의 기사(記事)들의 성격을 고려할 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재물의 낭비, 재물의 축적, 재물에의 집착. 이 세 가지 범주는 누가 공동체의 부자들의 생활습관에 대한 비판으로써,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누가의 목회적 권면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이 세 범주를 자세하게 다루기 전에 먼저 부자들에 대한 비판의 서론으로 소개되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화(禍) 선언'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부자들에 대한 화(禍) 선포(6:24-26)

24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도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부자들이 그들의 재물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공연히 경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저지르는 악행을 언급하는 본문으로부터 이를 유추해낼 수 있다. 즉 부자들은 복음서에서 시종일관 재물의 낭비, 집착, 축적 등 부(富)의 오용(誤用)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조롱으로 인해 암암리에 책망과 경고를 받고있다는 말이다.

① 먼저 우리는 이 구절들이 누가복음에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주제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담당할 역할에 관해 숙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구절들이 마가, 마태복음에는 없는 누가만의 특수한 구절로서 가난한 자들이 받을 복(6:20-23 / 마 5:1-12)에 대한 반(反)명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 구절 이전에 재물의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세례 요한의 설교(3:10-14)와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4:18-19)이다. 그러므로, 책망의 주제에 관한 누가복음에서는 이들 구절이 첫 번째 자료로서 소개되고 있다.

비록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설교(3:7-17)가 마가, 마태복음의 것과 차이가 난다 해도 우리는 세 복음서 속에 보전되어 있는 자료의 기본 구조는 본질상 동일하며, 3장 10-14절은 가난하고 빈핍(貧乏)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그의 감추어진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누가가 추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4장 18-19절과 6장 24-26절의 내용은(6:20-23도 포함) 마가와 마태복음에 비해 내용과 배경에 있어 완전히 다르다. 전자의 경우(4:18-19) 누가의 자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맞추어져 있음에 비해 마가복음(6:1-6)과 마태복음(13:54-58)의 자료는 상당히 후기에 맞추어져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누가가 이 자료의 저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6:24-26) 누가의 자료는 예수님의 제자 임명 다음에 나오며, 장소는 평지이다(6:17).. 이에 비해 마태복음의 경우(5:1-12)는 예수님의 제자 임명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나며, 배경은 산이다(5:1). 결과적으로, 3장 10-14절은 기존의 원자료에 단순히 덧붙인 것으로서 일종의 각색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4장 18-19절과 6장 24-26절은 완전히 새로운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다른 자

료들의 초입에 위치한 이 두 구절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축복과 부자에 대한 재앙이라는 양대 주제 전개의 도입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들 양대 주제와 연관된 아래의 자료들의 이해 및 해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지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②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이 단락은(6:24-26) 부자에 대해 적의를 표명할 정도로 빈부의 주제를 깊이 천착(穿鑿)하고 있지는 않다. 이 같은 측면은 가난한 자들을 무조건 축복하고 있는 그 앞 절(6:20-23; 참조 4:18)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주받아야 하고 이에 반해 가난한 자들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복 받은 존재란 말인가?

일견 난처해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별개의 단락으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보다 누가복음의 재물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과 조화시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구제에 관한 항목에서 이미 논의했듯이 어리석은 부자(12장),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부자(16장), 부자 관원(18장) 및 삭개오(19장)들이 부자의 전형적 실례로서 제시되고 있음에 비해 오직 한 사람 나사로만이(16장) 가난한 자의 전형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나사로 외의 가난한 자들의 실례는 장애인들, 저는 자들, 맹인들(14:13, 21), 나병환자, 귀먹은 사람(7:22)와 같이 집단적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두 대조적 유형에서 지적할만한 흥미로운 점은 부자의 실례는 가난한 자보다 더 개별적이고 빈번하게 제시되며, 각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취하는 다양한 특징들-재물의 축적(어리석은 부자), 재물의 낭비(16장의 부자), 재물에의 집착(부자 관원)-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가난한 자의 실례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가난한 자에 관한 다양한 묘사가 특정한 사람 나사로에 집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거지(일 뿐 아니라 헌대를 앓고 있는데(20절), 이는 '배불리려 하매와 함께 그가 장애인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7)</sup> 따라서 그는 장애인, 저는 자, 맹인, 나병환자, 귀먹은 사람과 같은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는 누가 시대의 다양한 부류의 빈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실례로서 제시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들 대부분은 저주 받은 존재로 묘사되는데 비해<sup>8)</sup> 가난한 자의 전형인 나사로는 축복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6장24-26절이 4장 18-19절과 더불어 마치 사도행전의 1장 8절처럼<sup>9)</sup> 누가복음에

7) *evpiqumw/n*(에피쉬뫼논)는 부정사를 동반하여(15:16; 17:22; 22:15 참조)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의미한다(Vincent, *Studies*, 1:201). 따라서 이 구절과 21절에 *oī ku,nej*(호이 쿨네스, "개들")가 나오는 점으로 보아 *oī ku,nej*는 나사로가 미처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그가 절름발이임을 의미한다. 이 점에 관해 예레미야스(J. Jeremias, *Parables*, p. 184)는 다음과 같이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그 개들은 힘없고 헐벗은 절름발이를 괴롭히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거리를 떠도는 사나운 개들이다."

8) 예를 들면, 우리는 몇몇 실례를 지적할 수 있는데, 마리아 송가의 권세 있는 자(1:52), 6:24-26의 부자들이 받을 화, 12:13-21의 어리석은 부자, 큰 잔치의 비유에서 먼저 초청받은 손님들(14:17-24), 16:19-31의 부자 및 18:18-27의 부자 관원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삭개오의 사건이 빈부에 관한 누가신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금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재물의 모티프를 다루고 있는 자료들 중 이 사건은 유일무이한데, 왜냐하면 부자에 대한 적의(敵意)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구제가 실제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빈부를 다루는 모든 자료들의 확실한 결론으로서 소개된 것이다.

9)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의 예언적 선언(1:8)이 역사적 맥락 속에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브루스는(Bruce, *Acts*, p. 39) "8절의 지명들은 사도행전의 일종의 '내용 색인'을 제공해 준다"고 말한다. 또한 Marshall, *Acts*, p. 39; Neil, *Commentary*, p. 66을 참조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행 1:8; 눅 4:18-19 및 눅 6:24-26의 세 구절들이 그 이름의 특수한 주제 제시에 있어 동일한 서론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실현되어야 할 예언적 선포의 구실을 하며,<sup>10)</sup> 구조적으로도 복음서의 서두에 위치하여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6장24-26절은 부자가 단지 그 부유함 때문에 저주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sup>11)</sup> 가난한 자들은 단지 그 가난 덕분에 축복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sup>12)</sup> 실제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가능성은 뒤따라 나오는 자료를 통해 확인되듯이 실제 사실로 판명된다.<sup>13)</sup> 따라서 이 구절은 복음서 서두에서는 하나의 가정적인 예언으로 간주될지 몰라도 동시에 복음서 전체로 본다면 실제 사실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자료들을 자기 의도에 맞게 배열하는 누가의 문학적 수완(手腕)을 보게 된다. 즉 누가는 그의 주제 구절 중 하나를(6:24-26) 예언적 선포의 형태로 복음서 서두에 놓고 그 뒤에 후속적인 자료들을 통해 이를 점진적으로 확인해 나감으로써 자기 독자들에게 그가 의도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 (2) 재물의 축적 :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12:13-24)

① 이 기사는 두 단락으로 대별(大別)되는데, 앞 단락은 유산 문제로 말쟁이 생긴 한 사람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로 되어 있고(13-15절) 이어서 부수적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온다(16-21절). 뒷 단락은 세상일을 염려하는 문제에 관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훈계이다(22-34절). 그러므로, 이 비유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앞 단락이 뒷 단락과 연결되어 있는지, 즉 양 단락의 주제가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유산 분배와 관련된 어떤 사람의 요청(13절)을 구실 삼아 예수님은 분명하게 중재자가 되기를 거절하면서<sup>14)</sup> 15절에서 격언을 말씀하신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교훈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sup>15)</sup> 예수님은 자기 생명이 소유의 풍부함에 있다고 믿고 더 많은 부(富)를 얻기 위해 안달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 및 뒤따르는 비유를 결론짓기 위해 예수님은 21절에서 또 다른 격언을 말씀하신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구절의 전 반부의 논지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 지상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sup>16)</sup>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일 이 비유 다음에 뒷 단락이 따라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는 아마도 재물은 무언가 예배적인(cultic) 목

10)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그 재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지 않은 부자들의 실례를 발견하는데, 삭개오, 갈릴리 여자들, 아리마대 요셉(23:50) 등이 바로 그런 부자들이다. 그래서 필그림(Pilgrim, *Good News*, p. 77)은 “축복이나 저주받는 것은 단순히 가난이나 부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난한 경우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부유한 경우이다.” 참조 O'Toole, *The Unity of Luke's Theology*, p. 129; Schrackenburg, *Teaching* p. 125.

11) 참조 Schnackenburg, *Teaching*, p. 128.

12) Danker, *Luke*, p. 83.

13) 참조 Schweizer, *Luke*, p. 287.

14) 예수님이 분쟁의 중재자로 나서기를 거부한 이유에 대한 필그림(*Good News*, pp. 110-111)의 설명은 그럴듯하다: “한 가지 분쟁을 중재한다고 해서 인간 내면의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p. 111).

15) Evans, *Commentary*, p. 520: “누가가 그 뒤에 덧붙이는 비유는(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는 누가가 흔히 사용하는 서론의 형태이다) 15절의 교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6) 17절에서 19절까지 1인칭 단수형이 8회나 나온다: poiη,sw(포이에소, 2회), suna,xw(쑤나소, 2회), e;cw(에코), kaqe,lw(카케로), oiηkodomh,sw(오이코도메소), evrw(에로) 및 대명사 mou(무, 4회).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기심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조 Plummer, *Commentary*, p. 324; Morris, *Commentary*, p. 212. 한편, 탈버트는(Talbert, *Reading Luke*, p. 141) 이 첫 단락은 탐욕의 문제와 씨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누가의 동시대뿐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도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여기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여기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즉 소유에 대한 세속적 근심을 버리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으며,<sup>18)</sup> 이는 사실상 15절의 의미와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 그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리라는 언질(言質)로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앞 단락의 21절의 의미는 바로 이어지는 뒷 단락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sup>19)</sup>

양 단락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우리는 이들 두 단락은 별개가 아니라 재물의 주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20)</sup> 다시 말하면,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 '재물 주제'라는 견지에서 통일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비유나 말씀이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 다를지 몰라도 그 모티프는 같기 때문이다. 혹은 이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앞 단락(12:13-21)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므로(이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한 누가의 특별한 관심을 의미한다), 누가는 마태복음에 평행 구절(마 6:25-34, 19-21)이 소개되어 있는 뒷 단락(12:22-34)의 재물 모티프를 강조하되, 이어지는 말씀(22-34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강화해주는 그만의 독자적인 자료를 그 앞에 덧붙임으로써, 이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기사의 끝 구절인 33-34절에 주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데,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i) 33-34절은 뒷 단락의(22-32절)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인 동시에 앞 단락의(13-21절) 결론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구절들이 항목 전체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1)</sup> (ii) 누가는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으로서 소개하는 구제의 모티프에 특별

17) 혹자는 이 비유가 원래 “종말론적 비유”로서 그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인해 야기되는 위기라고 주장한다(J. Jeremias, *Parables*, p. 164; 참조 C. A. Evans, *Commentary*, p. 521). 그러나, 이에 대해 필그럼은(*Good News*, pp. 112-113) 누가가 21절을 덧붙임으로써 이러한 과거의 원래 의미를 현재의 새로운 의미, 즉 “너무 늦기 전에 자기를 위한 삶을 그만 두고 하나님께 대해 재물을 쌓기 시작하라”에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8) “제자들의 세속성은 부자의 물질주의보다(그들의) 염려하는 태도에서 더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이다”(Ellis, *Commentary*, p. 176).

19) 피츠마이언은(Fitzmyer, *Commentary*, p. 976) 이에 대해 뒷 단락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한 주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테니힐은(Tannehill, *Narrative Unity*, p. 246) 뒷 단락이 특별히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므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뒤따랐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을 분류하는데 대단한 예리함을 보이고 있는 쇼트로프와 쉬테게만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The Hope*, pp. 72-75, 80-82).

이에 반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i) 만일 이 같은 논리를 따른다면, 구제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33-34절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타인들의 접대”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 제자들은 구제할 재물을 전혀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참조 9:3; 10:4). 참조 Evans, *Commentary*, p. 531. 이 점을 변명하기 위해 테니힐은 이 교훈은 “처분가능한 재산을 가진 모든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ibid.). 여기서 “처분가능한 재산”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치 않은데, 왜냐하면 그는 이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ii) 앞서 말했듯이 누가복음에서 maqhtai.(마셰타이)는 실제로 자기 전 재산을 포기한 사도들이 아니라 더 큰 추종자 집단, 즉 정착제자들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20) Talbert, *Reading Luke*, p. 140. 플러머도(Plummer, *Commentary*, p. 329) 구제란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한가지 방편이므로 구제자 자신에게도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탐욕을 매개로 하여 21절을 33절에 연결한다.

21) 탈버트도(Talbert, *Reading Luke*, p. 142) 이 항목 전체에서 이 구절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소유에 관한 항목은 구제하라는 특별한 명령인 12:33-34에 와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참조 Evans, *Commentary*, p. 525.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듯이, 35절부터는 새로운 항목이 시작되고 있다.

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sup>22)</sup> 이 점은 누가복음을 마태복음(6:19-20)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관찰된다. 이 논의의 결과 우리는 주제상의 일치의 견지에서 볼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21절)”을<sup>23)</sup> 야마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33절)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고<sup>24)</sup>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재물의 주제를 다루는 자료들 중 오직 이 비유만이 재물에의 집착과 낭비의 주제와는 구별되는 상이한 측면의 주제, 곧 재물의 축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는 원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곧 축적과 관련된 단어가 세 종류나 별개의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 쌓아두다( 원약소, 17, 18절), 케이메나(19절), 데사우리존(21절). 축적한다는 의미의 이 단어들이 이 비유 속에서 네 차례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비유가 본 주제와 관련해 갖는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경(Jerusalem Bible)에서는 이 비유의 소제목을 “재산을 쌓아둠에 관하여”라고 붙이고 있다.

유산 분배의 심판관이 되어 달라는 어떤 사람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 후에 이 점을 좀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결론은 21절에 나온다. 15절과 21절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우리는 15절을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가 여부에 달려 있다.” 이 말의 정반대 경우는 21절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자기에 대해 부요한 것, 즉 재물을 오직 이생의 안락(安樂)과 쾌락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다.<sup>25)</sup>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불러 가실 것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자기의 육신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어리석은 부자가 이 세상에서 재물 쌓기를 원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이 비유와 동일한 맥락 하에 있는 12장 33절을 놓고 볼 때,<sup>27)</sup> 여

22) 참조 Tannehill, *Narrative*, pp. 247-248.

23) 데겐하르트(Degenhardt, *Lukas*, pp. 79-80)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에반스의 주장은 21절이 “이야기 속의 ‘넉넉함’을 15절의 탐심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점에서 옳은 것으로 보인다(*Commentary*, p. 523).

24) 또한 Evans, *Commentary*, p. 531; Talbert, *Reading Luke*, pp. 141-143; Creed, *Commentary*, p. 173; Pilgrim, *Good News*, p. 111; Fitzmyer, *Commentary*, p. 974를 참조하라. 이 구절은 항목 전체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다양한 지적과 논평이 행해졌는데, 아래의 내용은 그중 일부로서 우리의 논제와 관계된 것이다.

(i) 여기서 예수님의 교훈에 나오는 pwle,w(폴레오)와 di,dwmi(디도미)는 누가복음 18장 22절에도 다시 나오며(pwle,w와 diadi,dwmi), 사도행전에서는 이 주님의 명령이 성취된 형태로서 나온다(행 2:45; 4:34-35). 따라서 누가의 이 같은 독특한 강조법은 구제 모티프에 있어 그의 두 책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Tannehill, *Narrative*, pp. 247-248; 참조 Fitzmyer, *Commentary*, p. 982).

(ii) 이 주님의 교훈은 공동체 내의 교회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겐하르트의 주장은 비유의 요점을 빛나간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의 제자들을 저 “직분자들”(Lukas, p. 87)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는 데겐하르트의 이 주장은 누가의 글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름 아닌 사도들이라는 그의 기본적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iii) 33절이 “금욕적 선택”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은(Creed, *Commentary*, p. 175; 참조 Schottroff & Stegemann, *The Hope*, p. 75) 틀린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구절 및 항목 전체에서 말하려는 것은 금욕이 아니라 자선이기 때문이다. 이는 위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바의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Plummer, *Commentary*, p. 329를 참조하고 또한 sh,j(세스-그는 이를 “값비싼 의복을 가리키는 말”로 추측한다)에 관한 그의 의견에 주의하라. 참조 Marshall, *Commentary*, p. 532.

25) 참조 Marshall, *Commentary*, p. 521. 이와 함께,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mou(내)라는 대명사를 다섯 번 사용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기심과 재물의 축적은 이 비유에서 부자의 우매함을 보여주기 위해 개념적 쌍(雙)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참조 Plummer, *Commentary*, p. 324; Hendrickx, *Parables*, p. 101; Ernst, *Lukas*, p. 400.

26) Karris, “Poor and Rich”, p. 120.

27) 그룬트만(Grundmann, *Lukas*, p. 258) 21절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33절에 주어



가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개인적 쾌락을 위해 이 땅에 재물을 쌓아서 안되며, 오히려 그 재물을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비유의 이 같은 배경과 누가의 경고를 근거로 하여 에른스트(Ernst)는 매우 적절한 논평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씀의 배후에는 공동체 삶에 대한 실제적인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부의 위험에 대해 경고 받고 있으며,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도록 요청 받고 있는 것이다.”<sup>28)</sup>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누가는 그의 공동체의 부유한 신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 위탁받은 재물을 그들의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지상에 재물을 쌓는다거나 하지 말고 사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한다”라고 깨우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sup>29)</sup>

### (3) 재물의 낭비

누가복음에서 재물의 낭비를 경고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는 크게 세 개인데, 공교롭게도 모두 비유이다: ‘탕자의 비유’(15:11-32),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16:1-13),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16:9-31). 먼저 지적할 것은 세 비유에서 이 재물의 낭비 주제는 주된 모티프(main motif)가 아니라 그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적 모티프(subsidiary motif)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비유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시될 수 없다. 오히려 보조적 주제로서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가지며, 그와 동시에 빈부에 관한 주된 주제에 관한 누가신학의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 ① 탕자의 비유(15:11-32)<sup>30)</sup>

15장 전체의 문맥으로 미루어볼 때 본 비유의 주제는 그 앞의 두 비유, 곧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주로 회개에 맞추어져 있다(7, 10, 32절).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부차적 모티프로서 재물에 대한 작은 아들의 잘못된 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부친이 죽으면 그의 재산은 장자가 두 몫을 받고 나머지 자식들은 각각 한 몫씩 받는다고 알려져 왔다.<sup>31)</sup> 재산의 대부분은 맏형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동생들은 때때로 자기의 상속분을 요구해서 이를 현금으로 바꾼 뒤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집을 떠나곤

져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커는(Danker, *New Age*, p. 252) 33절이 결국 21절에 대한 해설이라고 말한다.

28) Ernst, *Lukas*, p. 400. 참조, Fitzmyer, *Luke*, p. 972. 드러리는(Drury, *Parables*, p. 137) 토비트 7:9-12의 토비야스 이야기를 언급하고, “이 이야기에는 비유(알레고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비유를 ‘일상 세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며, 그 도덕적인 의미는 일반인들이 이해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29) 청지기의 비유가 같은 12장에 나오는 것도 역시 저자가 그의 부유한 독자들이 자기 재산을 신실하게 쓰도록,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도록 격려하려는 그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자료들을 사려 깊게 배열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0) 예레미야스(J. Jeremias, *Parables*, p. 128)는 이 비유는 우화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얻어진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참고 E. Linnemann, *Parables*, p. 74; A. M. Hunter, *Parables*, p. 61).

31) 고대 근동의 유산의 상속에 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J. Jeremias, *Parables*, pp. 128-129를 참조하라. 참고 눅 12:13 이하.

했다.<sup>32)</sup> 이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은 당시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자기 몫을 요구해서 이를 매각한 후 집을 떠나버렸다. 누가 시대의 많은 유대의 젊은이들은 집을 떠나 멀리 외국에서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시험해 보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는 자기 돈을 투자하는 대신<sup>33)</sup> “거기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13절)했고, “아버지(당신)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30절)버렸다. 재물의 주제에 관한 누가의 견해에 비추어볼 때 둘째 아들의 그 같은 행실은 누가에게 충격적이고 도발적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재물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그의 의도와는 반대로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오직 이기적인 쾌락 추구에 탕진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둘째 아들의 행위의 내용에도 주목해야 한다. 본문에 의하면 그는 회개해야만 하는 죄인의 전형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가 종교적 규율과 계명을 위반했다는 의미의 죄인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21절). 그의 악행의 내용은 자기 재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단정은 그의 악행이 오직 두 절에만 서술되어 있고(13, 30절), 그것은 단지 그의 그릇된 재물 사용, 즉 상속재산을 방탕하게 낭비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에반스(Evans)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는(18절)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가 집을 떠난 사실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12절에는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며, 30절을 보면 그가 저지른 악은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낭비했다는 사실이다.”<sup>34)</sup>

따라서, 그의 죄는 특별히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sup>35)</sup> 도덕적인 것으로서 자기 재산을 잘못 사용한 데 있다. 결과적으로 그의 회개는 오직 그의 사치스런 생활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18, 21절. 참조 13, 30절).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것은 21절 전반부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의 잘못은 13절, 30절에 의하면 재산을 허비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재물의 탕진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룬트만(Grundmann)은 “그의 죄과는 아버지가 그에게 생활하도록 위탁했던 재산에 대한 불성실한 자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6)</sup> 이런 의미로 본다면, 누가는 재물의 허비를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으며, 이 점에서 특히 그의 공동체 내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37)</sup> 이 같은 사실을 누가 공동체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누가는 이 비유에서 부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개인적 쾌락 추구에 낭비하는 부자들은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그들이 재산을 탕진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이스라엘을 빠져 나와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은 다반사였는데,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은 빈번한 기근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었고, 누구든지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레반트 지방의 무역을 하는 대도시에서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Linnemann, *Parables*, p. 75).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50만)보다 약 8배(4백만)가 디아스포라로서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J. Jeremias, *Parables*, p. 129).

33) Marshall, *Commentary*, p. 608.

34) Evans, *Commentary*, p. 592; cf. Johnson, *Literary Function*, p. 161; Fitzmyer, *Commentary*, pp. 1088, 1091.

35) 15절에 근거하여 둘째 아들이 전례법(典禮法)상의 죄(a ritual sin)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데, 왜냐하면 패자를 치는 것은 유대 율법에서 엄격히 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방인에게 고용될 때 “그는 자신의 종교의 정규적인 예배 의식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을 것이 틀림없다”(J. Jeremias, *Parables*, p. 129; 참조, Linnemann, *Parables*, p. 76).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본문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그의 악행, 곧 재물의 탕진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다. 결국, 둘째 아들의 죄를 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본문에 함축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의미보다는 명백하게 드러난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36) Grundmann, *Lukas*, p. 312.

37) 이 비유의 배경이 부유한 농장으로서 아버지인 소유주는 넓은 토지뿐 아니라 종, 고용인,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참조 Goulder, *Paradigm*, 2:613.

여기서 문맥상 이 이야기의 전후 순서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된다. 즉 이 비유 바로 뒤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접속사 de.(또한 16:1)로 연결되어 나오며, 두 비유에 모두 허비한다는 의미의 diaskorpi,zw(디아스코르피조, 15:13에서는 diesko,rpisen[디에스코르피센]; 16:1에서는 diaskorpi,zwn [디아스코르피존])가 사용되고 있다. 그룬트만은 두 비유의 이 같은 상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와의 관계는 대조를 통하여 입증된다. 즉 두 비유의 상관관계는 15장 13절과 16장 1절에서 diaskorpizein(디아스코르피제인)이 두 번 사용됨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맡겨진 재물의 낭비는 둘째 아들과 청지기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다.”<sup>38)</sup>

이러한 근거에서 본다면 누가는 양 비유를 재물의 주제-특히 이 경우는 재물의 낭비의 주제를 매개로 하여 연결짓는데 관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15장 3-10절과 16장 1-13절 사이에 놓인 이 비유는 과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회개와 재물의 낭비라는 두 주제가 다 포함되어 있고, 뒤이어 나오는 비유는 재물 주제의 또 다른 중요한 모티프인 구제의 모티프를 형성하기 위해 두 주제 중 하나인 빈부의 주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16:1-13)

탕자의 비유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지적했지만 양 비유는 보조적 주제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탕자의 비유에서는 재물의 낭비가 회개라는 주된 주제와 함께 보조적 주제로서 도입되고 있다면, 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제라는 주된 주제와 함께 재물의 낭비가 보조적 주제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조적 주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두 비유는 동일 주제의 연속 선상에 있으며, 이는 16장 1절의 “또한”(de. kai. 테 카이)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저지른 것으로 지적된 유일한 악행은 자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것이다(1절). 그래서 그는 청지기직에서 해고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2-3절).

본문의 청지기가 옳지 않다고 묘사되고 있는 것 역시 우리의 주의를 끈다(8절 전반부). 만일 우리가 이 비유의 주된 주제를 구제로 보았던 앞서의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그를 옳지 못하다고 묘사하는 것은(8절) 부당해 보인다.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위탁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했으므로 옳다고 묘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그가 옳지 않다고 묘사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앞의 비유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비유는 앞의 비유와 보조적 주제 면에서 같기 때문이다.<sup>39)</sup>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 자신의 악행은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한 죄라고 시인한 바 있다(21절). 이 말은 재산의 낭비는 하나님께 범한 것이라는 누가의 사상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비유를 살펴본다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청지기 역시 하나님과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옳

38) Grundmann, *Lukas*, p. 317. 또한 Ernst, *Lukas*, p. 462; Beck, *Character*, pp. 28-29; Marshall, *Commentary*, p. 608; Fitzmyer, *Commentary*, p. 1100; Hendrickx, *Parables*, p. 170를 참조하라. 한편 슈미탈스(Schmithals, *Lukas*, pp. 167-168)도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그 앞의 비유 및 14:25-35와 구빈(救貧, Armenfrömmigkeit)의 모티프로 연결 짓는데, 그는 이 모티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세상 재물을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39) 여기서 청지기는 15:13에서 둘째 아들이 행한 죄와 같은 죄목으로 비난받고 있다. 따라서 재물의 낭비의 측면에서 양 비유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참조, Grundmann, *Lukas*, p. 317; Ernst, *Lukas*, p. 595; Danker, *Luke*, p. 173; Ellis, *Commentary*, p. 200.

지 않다고 묘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 채무자에 대한 청지기의 소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던 청지기의 초기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그가 16장 8절에서 옳지 않다고 묘사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그의 수상한 돈 거래의 경력에 일부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양 비유 속에 감추어진 이 같은 측면은 재물의 위험성을 경고할 뿐 아니라 그 낭비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는 저자의 의도의 반영일 것이다. 청지기도와 관련지어 볼 때, 자기 주인이 위탁한 재산을 관리하도록 허락 받은 사람이 이를 마치 자기 돈인 양 낭비해 버리는 것은 심각한 죄악인 것이 사실이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누가 비유에서 특별히 강조점을 두는 것은 곧 재산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이며, 아울러 파멸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 ③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16:19-31)

누가 시대의 부자들은 때때로 그들의 우월한 지위, 부, 명성을 과시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음식을 대접하곤 했다. 이것은 드물지만 가난한 자들로서는 그들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였다. 이 비유의 배경은 누가 시대의 이 같은 사회 관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19절).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고 '고대 세계의 가장 사치스런 직물'인 자색 옷과<sup>40)</sup>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sup>41)</sup>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대문 앞에 있는 가난한 나사로의 고통스런 기아(飢餓)와<sup>42)</sup> 질병을 구제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나사로는 온 몸이 헌데(궤양)로 덮여 있고, 너무나 힘이 없어서 개들이 그 헌데를 핥지 못하게 쫓을 수가 없었으며, 너무나 가난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가까이 먹으려 하였다.

본문에 의하면 부자는 그가 인생에서 저지른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행하도록 명령되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이다(신 6:5; 레 19:18).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할 의무의 태만은 이야기 속에, 특히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의 대화 속에(25절) 함축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부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불평하고 그 형벌로부터 풀려나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43)</sup> 그 부자는 평생 그의 이웃의 궁핍을 도외시함으로써 아브라함과의 영적 유대를 스스로 단절해 버렸다. 이웃을 제 몸 같이 사랑하는 대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살지 않았고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았으며, 자기만족만을 추구하였던 것이다.<sup>44)</sup>

40) porfura(포르퀴라)는 "왕이나 왕에 버금가는 권위"와 연관되어 있으며, 극히 값비싼 것이었다고 전해진다(Manson, *Sayings*, p. 296; J. Jeremias, *Parables*, p. 183).

41) 19절의 evnedidu,sketo(엔에디뒤스케토)는 미완료로서, 그것이 부자의 습관적인 복장임을 의미한다.

42) 21절의 evpiqumw/n(에피퀴뭌)은 부정사와 함께 쓰여(참조 15:16; 17:22; 22:15) 나사로의 충족되지 못한 욕망, 즉 "열심히 원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Vincent, *Word Studies*, 1:201). 그래서 예레미야스는(J. Jeremias, *Parables*, p. 184)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 "나사로는 얼마나 기쁘게 그것들(=빵 부스러기)로라도 자기 허기를 채우려 했을까?"

43) Plummer, *Commentary*, p. 395. 반대 의견은 Evans, *Commentary*, p. 615. 한편 25절에 대한 예레미야스의 주해는 주어진 본문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Parables*, p. 185): "25절이 실제로 말하려 하는 것은 불경건과 물 인정은 별반과 경건과 겸손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는 나사로의 경건과 겸손 보다는 부자가 저지른 악행에 관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나사로의 선함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기록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partiality)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구약과 예수님의 특징으로 이해된다(Schweizer, *Luke*, p. 262).

44) 부자의 죄악에 대한 클라인(H. Klein)의 정의는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의 죄악은 그가 오직 부(富)만을 바라보며 거기서 만족을 찾았다는 것이다(*Barmherzigkeit*, p. 99). 참조 Mealand, *Poverty*,

이와 관련하여, 25절에 나타난 누가의 의도는(“받았고”) 부자들은 이생에서 이미 자기 위로를 받았으니 내세에서는 굶주림, 비탄, 울음이 있으리라는 이유에서 사실상 6장 24-25절의 부자가 당할 화(禍)와 일맥상통한다.<sup>45)</sup> 이 같은 일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과 불경건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sup>46)</sup> 그리고 또한 마리아 송가(1:53)에도 나오는 내세에 있을(빈부간의) 운명의 역전(逆轉) 및 부자가 입을 화(6:24-25; 참조 18:29-30)와의 연속성을 실증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본 비유의 핵심 역시 “세상 재물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누가가 이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같은 장(章)에 넣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문맥을 고려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앞의 비유에서, 옳지 못한 청지기는 마침내 그에게 위탁된 재물을 가난한 채무자들의 복지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며, 그래서 16장 9절에 의하면 그는 그의 증인들 곧 이생에서 그가 베푼 자선의 수혜자들의 도움으로 ‘영원한 처소’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뒤의 비유에서 부자는 그의 재물을 오로지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16장 9절을 이 경우에 적용한다면 그는 영원한 처소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친구도 이 세상에서 행한 그의 자선을 증언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16장 23절에서처럼 음부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16장 9절은 양 비유의 의미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제 구절(theme verse)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두 비유는 재물의 바른 사용에 관해 대조적인 두 청지기 모델상을 제시하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즉 한 쪽은 선하고 성공한 것으로 묘사되며(불의한 청지기), 다른 쪽은 악하고 실패한 것으로 묘사된다(부자). 이들 한 쌍의 모델을 통해 누가는 그의 동시대인들, 특히 이기적 쾌락을 위해 재물을 소비하되 이웃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비유 속의 부자와 같은 부유한 신자들에게 격려와 경고를 전달할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비유에는 앞의 비유들에서처럼 diaskorpi,zw(디아스코르피조, 15:13; 16:1)가 나오지 않지만<sup>47)</sup> 19절은 분명히 부자의 호사스런 생활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물의 방탕한 낭비를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구절에서 받는 인상은 그가 사치스런 삶을 살면서 개인적 쾌락의 추구에 탐닉했다는 것이다(19절). 비록 그가 자신의 부유한 신분에 걸맞게 자색 옷과 고운 배옷(19절)을 입는 것은 용인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것은 명백한 재물의 낭비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같은 관점에서 25절을 본다면 탕자와 부자의 사치한 생활에

p. 47.

45) 비유의 요점은 후반부(27-31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예레미야스의 주장(*Parables*, p. 186)에 반대하여 에반스(Evans, *Commentary*, pp. 614-615) 본 비유(25절)와 누가판(版) 팔복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더욱이 25절의 판결은 팔복과 6:20, 24의 화(禍)의 첫 부분을 너무나 정확히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한 무게를 가지면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내용을 가리키는 서론으로 오해할 소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Pilgrim, *Good News*, pp. 114-115; Schottruff & Stegemann, *The Hope*, p. 99를 보라.

46) 그 비유의 취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위로와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그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Pilgrim, *Good News*, p. 119), 필그림은 비유의 후반부를 부자들을 향한 경고로 해석한다. 이런 측면과 관련하여, 그의 주해의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29절의 모세와 선지자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구제의 요구가 구약 율법의 핵심이다”(p. 118).

47) 그러나 우리는 16장의 두 비유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qrwpo,j tij h=n plou,sioj(안쓰로포스 티스 엔 플루시오스, “어떤 부자에게”, 1절) / :Anqrwpoj de, tij h=n plou,sioj(안쓰로포스 데 티스 엔 플루시오스, “한 부자가 있어”, 19절). 이는 양 비유가 동질적이라는 누가의 취지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대한 비난이 25절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좋은 것을 받았고” 결국 그가 음부에 떨어지게 된 주된 이유는 그가 생전에 자기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며(25절), 이는 그의 풍부한 재물로부터 기인되었을 것이다.<sup>48)</sup> 즉 그는 일생동안 재산을 호사스럽게 낭비하면서 개인적 쾌락을 추구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자기 재산을 호화로이 써버리면서도 나사로를 결코 구제하지 않았던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앞서의 비유에서 재물의 낭비는 옳지 않으며(16:8) 죄라고(하마르티아, 15:21) 묘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그 같은 사법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 그가 세상에서 저지른 악행의 직접적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로부터 재물의 낭비는 누구라도 지옥으로 이끌 수 있는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양적인 과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자의 그 같은 공공연한 행위는 우리가 부자들의 태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경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그 부자의 그런 공공연한 행위 배후에는 더 많은 악행의 가능성이 그의 재물 낭비 및 구제 거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를 지옥으로 던져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자기 재물을 사치스럽게 낭비하면서도 공동체 내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절대 구제하지 않는 부자들에게는<sup>49)</sup> 두려운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

#### (4) 재물에 대한 집착

누가복음에서 ‘재물에 대한 집착’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큰 잔치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부자 관원(청년)의 기사’이다.<sup>50)</sup>

##### ① 큰 잔치의 비유(14:16-24)

재물에 대한 집착의 시각에서 이 비유를 다루기 전에 먼저 비유의 상황 및 배경을 살펴봄이 유익할 줄로 생각된다. 누가복음 14장 1-24절은 식탁 교제라는 단일 배경 하에서<sup>51)</sup>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 역사적 정확성은 연속되지만 사건들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상세히 말한다면, 1-6절은 안식일에 고창병 든 사람을 고치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기록하고 있으며, 7-11절은

48) Grundmann, *Lukas*, p. 329.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밀랜드는(Mealand, *Poverty*, p. 32) 부자에 대한 비난은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면서, 운명의 역전의 모티프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부자들이 받을) 화(禍, 6:24-26)나 마리아 송가(1:51-53)의 관점과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와는 동떨어진 자료들을 고려하는 대신, 본문과 그 주변의 문맥, 곧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직접 대면한다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의 소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49) 16장의 두 비유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쉐라터는(A. Schlatter, *Lukas*, p. 376) 그 요점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비유는 ‘주라, 그리하면 너는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비유는 ‘남을 도와주지 말고 흥청망청 쓰거라, 그러면 너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50) 여기에 8장 14절 말씀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to. de. eivj taj avka.nqaj peso,n( ou-toi, eivsin oi` avkou,santej( kai. u` po. merimw`n kai. ploutou kai. h` donw/n tou/ bi,ou poreuo,menoi sumpni.gontai kai. ouv telesforou/sin).

51) 탈버트는(Talbert, *Reading Luke*, p. 196) “이 장면은 하나의 문학적 장치”로서, 1-6절, 7-11절, 12-14절, 15-24절의 4가지 개별적인 전승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조 Creed, *Commentary*, p. 188; Ellis, *Commentary*, p. 191.

식사 시(時)의 예법에 관한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은 각기 별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12-24절은 재물의 올바른 사용과 공동체 내의 가난하고 불우(不遇)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단일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그 자체로서 한 단원(單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i) 12절에서 예수님은 주인인 바리새인 두령에게 잔치를 배설하게 되면 답례 초청을 기대하여 벗이나 형제, 친척들을 청하지 말고 접대에 보답할 능력이 전혀 없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소경들을 청하라고 말한다(13절). 그러면 의인의 부활 시에 그 보상을 받을 것이다(14절).<sup>52)</sup> 여기서 고려할 점은 12-24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대상인 바리새인과 그 초대받은 친구들은 부유한 이웃이 있고 또 음식을 대접하거나 그 부유한 이웃들을 집에 초대할만한 재력을 지닌 누가 공동체의 부유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가 두령(a:rcwn 아르콘), 아마도 산헤드린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12-14절에 관한 카리스(R. Karris)의 지적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후반부의(14:12-14) 의미가 통하기 위해서는 누가 공동체에 잔치를 베풀만한 재력을 갖춘 신자들이 확실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복음 14장 12-14절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며, 당대에 만연하였던 그리스-로마 세계의 호혜주의 윤리(친구에게 빚을 지우라. 그러면 언젠가 훗날 그들의 차용증서를 현찰로 바꿀 날이 올 것이다)와 정면 대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2-14절의 요점은 부자는 자기 재물을 선용하여 공동체 내의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을 지상에서의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눅 6:35 참조).<sup>53)</sup>

(ii) 예수님은 앞의 말씀의 모티프를 이어받아 ‘큰 잔치의 비유’를 소개하는데, 이 비유는 그 묘사가 몹시 생생하기 때문에 12-14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sup>54)</sup>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잔치에 아마도 “부유한 사람들, 대지주들”로 여겨지는 손님들을 초청하지 만<sup>55)</sup> 그들은 하나같이 다양한 개인적 이유를 붙여 초청을 거절한다. 그래서 주인은 초청된 자들 대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및 “길과 산을 거의 집 없는 자들”(23절)을 초청한다. 따라서 “잔치자리가 거지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리 손님들의 명단이 소경과 저는 자의 순서가 바뀐 것 외에는 13절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특기할 일이다. 더욱이, 누가의 이 비유를 마태복음의 평행 비유와 비교해 본다면(22:1-14),<sup>56)</sup> 특히 두 이야기 사이에 원래 초청 받은 사람들을 대신하는 손님들

52)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너무나 크게 강조된 나머지 지상의 상급은 사소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만 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런 점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으로 특징 지워지는 누가의 일반적인 상급(賞給) 사상을 보여준다(참조 6:33 이하; 18:22).

53) 누가 당시의 헬레니즘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가 주로 호혜적인 관계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후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누가복음에서 이 풍습에 대한 최고의 실례는 앞서 논의한 바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대책(16:3-7)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 12-1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문화 속에서 통용되는 증여(贈與, gift-giving)의 근본적인 논거를 거부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 혁명과도 유사한 그 무엇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54) 베크(Beck, *Character*, p. 35)는 이 비유를 12-14절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지으면서 이 비유는 “12-14절의 충고에 대한 토대를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소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55) J. Jeremias, *Parables*, p. 176. 그 당시 만연했던 호혜주의 윤리를 고려해 볼 때, 이 주인은 보상적 혜택을 얻기 위해 자기를 다시 초청할 만큼 부유한 사회적 동배(同輩)들을 초청하려 했을 것이다. 따라서 소 다섯 거리를 산 농부(19절)는 광대한 농경지-아마도 45헥타르(13만 5천 평) 이상-를 소유했을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밭을 산 농부(18절), 갓 장가든 사람도 역시 사회적으로 그와 유사한 동류로 간주된다.

56) 마태복음에서 약간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가 누가가 의존했을 원자료와 같았는지, 또는 양 기사는 독립된 것인지 여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좀더 자세한 논의는 Fitzmyer, *Commentary*, pp. 1050-1054; Marshall, *Commentary*, p. 584를 보라.

을 비교해보면,<sup>57)</sup> 나중에 초대된 사람들을 누가가 추가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13절의 명단과 일치하기 때문이며,<sup>58)</sup> 또한 유사한 명단이 다른 곳, 즉 4장 18절과 7절 22절에도 나오기 때문이다. 복음서에 산재해 있는 이들 네 구절들은 누가가 가난하고 불우한 자,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sup>59)</sup>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 및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명확한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

누가가 당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비참한 사회경제적 실상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공동체 내의 부유한 신자들에게 교회 밖의 부자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말고, 전혀 달리 처신해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후하게 베풀라고 격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값을 능력이 있는 부자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낫다는 예수님의 충고가 나오는 12절의 모티프와 부합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비유의 배경으로서 누가 시대의 교회 밖 세속 사회에서 부유한 귀족이나 후원자들이 베푸는 잔치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즉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sup>60)</sup>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기아 문제의 항구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횡수가 너무 적었다.

(iii) 이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12-14절)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양자를 구분하여 전자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후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또한 비유의 해석을 놓고 그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이며(15절), 예수님은 이 잔치를 ‘내 잔치’(24절)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구속사나 구원론적 시각에 비추어 이해하려고 한다.

필자는 이 같은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누가신학의 주목할 만한 특징인 재물문제에 대한 그의 강조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도달한 바 있는 결론으로서,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에 대한 누가의 이해는 영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6장 20-21절(마 5:3-10 참조)이며, 그와 유사한 구절이 4장 18절과 7장 22절이다. 따라서 우리가 부(富)에 대한 누가복음의 이 같은 특색을 유념한다면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를 저자 누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거의 타당치 못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해 13절은 무엇보다도 문자적, 물질적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이에 비해 21절은 비유적, 영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슈미트(T. E. Schmidt)의 주장은 지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누가가 그의 독자들에게 거의 똑같은 구절들을 각각 다르게 읽도록 의도했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iv) 이제 재물에 대한 집착의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부자에 관하여 논의해 보자. 그 셋 가운데 최소한 두 사람이(18절, 19절)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밭과 다섯 겨리의 황소 같은 자기 재산을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변명은 빈약하며 거짓된 것이 명백한데, 왜냐하면 그들의 행

57) 마태복음 22장 10절에는 원래 초청 받은 사람들 대신으로 “악한 자나 선한 자”(ponhrou,j te kai. avgaqou,j 포네 루스 테 카이 아가쑤스)를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드는(*Commentary*, p. 188) “마태는 비유를 여기(=누가복음)에 나타난 것보다 좀더 발전되고 우의적(寓意的)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레미야스도(J. Jeremias, *Parables*, p. 176)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 누가복음의 명단이 원래의 것이며, “본질상 변화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참조 Marshall, *Commentary*, p. 590.

58) 베크는 13절과 21절의 명단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는 결코 우연일 수 없으며, 우리가 손님들의 경제적 신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거절하는 자들은 부자이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보답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주장한다(Beck, *Character*, p. 35).

59) 참조 레 21:17-23; Degenhardt, *Lukas*, p. 100.

60)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여기서 ‘떡을 떤다’는 것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결국 구제의 한 방편이었다.



위는 방금 완료된 행위를 가리키는 부정과거형으로(hvgo, rasa 에고라사, 18절, 19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그 물건들을 사기 위해) 조사하는 행위가 사는 행위보다 앞서지 않고 뒤에 나온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뿐만 아니라, 누가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타인의 잔치 초청을 존중해주는 것이 지배적인 관습이라는 것과 또한 아랍 부족들에게는 두 번째 초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전쟁 선포와 맞먹는 명명백백한 모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초청은 마치 명령과 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도, 본 비유에서 초청 받은 사람들은 이를 고의로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거절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부(富)에 대한 집착이 그들의 잔치 참여를 가로막은 요인이 되었음을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논의했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22:1-14)과 비교해 볼 때 누가복음에서는 손님들의 변명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처음 두 변명은 누가복음의 경우보다 짧고 간략하며 세 번째 변명은 완전히 다르다:

마 22:5

5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 차로 가고

눅 14:18-20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또한 마태복음의 손님들이 부유하거나, 그들의 변명이 누가복음처럼 재물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양 복음서 기자들이 번안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재물의 주제, 특별히 재물에 대한 집착의 주제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에서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절, 24절을 놓고 볼 때 이 잔치는 메시아적 연회(Messianic Banquet : 이 점은 평행구절인 마 22:1-14에 더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와 같은 단순한 지상적 잔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sup>61)</sup> 우리가 본 비유의 해석에서 이 점을 고려한다면 손님 후보자의 거절은 대단한 중요성을 갖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적 연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결코 허락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sup>62)</sup> 즉 그들은 영적 구원을 상실할 운명인 것이다.<sup>63)</sup> 결국 그들은 재물에 집착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구원을 잃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이 문제에 대한 마샬(Marshall)의 다음과 같은 논평은 적절해 보인다 :

“세 변명은 모두 한결같이 상업적, 가정적인 대소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소유나 가정적인 연줄에 대한

61) 예레미야스(J. Jeremias, *Parables*, p. 69)는 누가가 이 비유에 나오는 잔치를 구원의 잔치로 간주했다고 주장한다.

62) 에반스(Evans, *Commentary*, p. 574)는 초청 받은 사람들의 변명을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과 연관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변명들은 의무의 허용 가능한 면제에 대한 성경 말씀 속에 은신하고 있지만, 전부 종합해 보면 아마도 경제적, 사회적 애착이 하늘 나라의 소명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위력이 어떠한 지 보여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 Danker, *Luke*, p. 165; Schweizer, *Luke*, p. 237.

63) 13:25-30에도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 구절과 14:16-24의 차이점은, 13장의 등장인물들은 무심코(비고의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임에 비해, 14장의 등장인물들은 고의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오도록 초청 받고 정해진 시각에 그들의 좌석을 차지하도록 부름 받았음에도 이를 일부러 거절한 것이다(Gooding, *Luke*, pp. 267-268).

집착의 위험성이 제자도에의 소명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한다. 그것을 굳이 비유 외적(外的)으로 해석하기 위해 풍유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sup>64)</sup>

이 비유를 보면 주요한 두 주제가 하나의 줄거리 속에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는 구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미 앞서 논의한 바 있는데, 여기서 그 적용은 곧 잔치를 베풀게 되면 부자보다는 사회의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상급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4:14).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논의하는 재물에의 집착과 관련된 것으로서, 소유에 극단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초청을 거절하는 손님의 사례를 통해 부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비유와 그 앞의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공동체 내부의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비록 양자가 기독교 신앙은 공유하고 있다 해도 부자들은 여전히 호혜주의 윤리가 지배하는 동시대의 문화 관습을 좇아 살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하여 부자들의 뿌리 깊은 비기독교적 태도를 교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애를 일깨우기 위해 누가는 이 주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공동체 내의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관계에 적용하려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주제를 구사하여 그의 공동체 내의 부유한 신자들에게 비유에 나오는 초대된 사람들처럼 자기 재물에만 집착하지 말고(그렇게 하면 자신의 영적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므로) 그 재물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충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큰 잔치 비유에서 누가는 부자들이 재물에 집착하는 그릇된 행태(行態)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는 행위를 구제 실천의 한 실례로서 소개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 ② 부자 관원(18:18-23)

부자 관원의 기사는 공관복음마다 전부 나오지만, 상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따라서 그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은 누가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부자 관원의 사건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그에 대한 누가의 묘사로서(23절), 이는 마가복음과(10:22) 마태복음의(19:22) 평행 구절과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에서 누가의 표현은 마가나 마태의 표현보다 더 강하다. “근심하더라”는 부자 관원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며, “큰 부자이므로”는 그의 엄청난 재산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특징은 그가 “관원”이었고(18절),<sup>65)</sup>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권고를 듣자 심히 근심했다는(23절)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sup>66)</sup> 이 중 “근심하더라”는 부자 관원이 마가와 마태복음의 경우보다 누가복음에서 더욱 심각하게 재물에 집착하는 것

64) Marshall, *Commentary*, p. 588.

65) 마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그의 직함인 *aircwn*(아르콘) 역시 우리의 주의를 끈다. 이는 아마 그가 회당장이거나(참조 8:41) 산헤드린의 의원임을(23:13, 35; 24:20) 의미하는 것일지 모른다(Marshall, *Commentary*, p. 684). 따라서 이 직함 역시 그의 큰 재력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참조 14:1; Creed, *Commentary*, p. 225). 이와 관련하여 에반스는(Evans, *Commentary*, p. 649) 누가복음의 특징 하나를 지적한다: “누가에게는 재물과 높은 지위가 동의어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참조 16:14 이하).”

66) *peri,lupoj*(페리뤼포스)는 막 10:22와 마 19:22의 *lupou,menoj*(뤼푸메노스)보다 어의(語義)가 강하다. 이에 관해 플러머는(Plummer, *Commentary*, p. 424) 흥미롭게도 부자 관원의 이 사례를 최초의 제자들의 경우(5:11)와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반응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다: “그(부자 관원)는 배와 그물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의 배와 그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분부를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그것들에 집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조, Fitzmyer, *Commentary*, p. 1200.

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암시한다.<sup>67)</sup> 이처럼 이 기사는 부자관원이 얼마나 부유한지 보여주지만, 그는 자기 소유를 포기하려 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 재산 팔기를 거절하고 만다. 하나의 사례적인 기사로서, 부자 관원에 대한 이 같은 묘사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신자들에게 나누어주기를 망설이고 있는 공동체 내의 부유한 신자들에 대한 혹독한 비난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24-25절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부자 관원이 자기 재산에의 집착을 고집한다면 삭개오와는 달리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sup>68)</sup>

둘째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마가복음 10장 22절과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부자 관원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음에 비해 누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청중들 한가운데 “부자들의 대표로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24-25절의 부(富)의 위험성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그에게 직접 주어진 것이지<sup>69)</sup> 마가복음에서 처럼(10:23) 오직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로 보아 누가 공동체 내에는 부유한 신자들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공동체의 부유한 신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 일화(逸話)에서 유의해야 할 한가지 사항은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의미는 비유나 말씀보다도 누가의 회중에게 훨씬 더 분명했을 가능성이 크다.<sup>70)</sup> 더욱이, 삭개오는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반면 관원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으로 볼 때 삭개오와 관원이 모두 누가 공동체의 부유한 신자들의 대표이지만 관원은 예수님의 권고를 따르지 못했으므로 그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반면에 삭개오는 재산 문제의 극복에 성공했으므로 그의 이름이 재물의 바른 사용에 대한 좋은 실례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1)</sup> 달리 말한다면, 누가는 마가와 마태복음보다 부자 관원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킴으로써 그의 공동체의 부유한 신자들에게 재물에의 집착이 가져다줄 위험성, 곧 영적 구원의 장실을 경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험성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 14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재물의 그릇된 사용의 결과로 임할 형벌에 대한 누가의 사상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부자들에 대한 목회적 권면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누가가 부자들이 재물을 사용할 때 저지르는 잘못이 뚜렷하게 묘사된 그만의 고유한 자료들을 상당수 보유하고,<sup>72)</sup> 또한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큰 잔치의 비유나 부자 관원의 기사와 같은 원자료들에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누가의 수정

67) 골더는(Goulder, *Paradigm*, 2:673) 부자 관원과 소경의 반응(18:35-43)을 비교하면서 그 재물로 인한 그의 슬픔을 강조한다. 참조 Evans, *Commentary*, p. 652.

68) “우리는 눅 18:23(참고 16:14 이하; 18:9-14)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깨닫게 된다”(Grundmann, *Lukas*, pp. 354-355). 참조 Schmithals, *Lukas*, p. 182; Caird, *Commentary*, p. 205.

69) 여기서 누가가 변화를 준 내용을 보라 : “저를 보시고”(Vidw.n de. auvto.n 이돈 데 아우톤). 비교 막 10:23; 마 19:23(“제자들에게”). 참조 Evans, *Commentary*, p. 652.

70) Ernst, *Lukas*, p. 503 : “누가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는 특별히 이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1) 시컴브는(Seccombe, *Possessions*, p. 131) 누가가 삭개오를 중요한 인물로 의중에 두고 있었으며, 또한 그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독자들은 그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는 아마도 그들이 자기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72) 어리석은 부자,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등.

의도는 재물사용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그의 공동체 내의 가난한 자와 부자들에게 대한 배려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가 그의 공동체 내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행하는 재물의 오용(誤用)을 비판하고자 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sup>73)</sup>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들에 대한 비판의 세 가지 범주를 차례로 살펴본다. 즉 누가는 그 공동체의 부자들의 재물사용의 관습을 재물의 낭비, 축적, 그리고 집착 등 크게 세 범주로 구분 지어 재물의 그릇된 사용을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던졌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가가 이러한 부자들에 대한 비판 및 경고를 통하여 무엇을 의도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누가는 과연 일방적으로 가난한 자들만을 옹호하고, 부자들은 저주하였는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가가 전하는 복음은 어느 사회 혹은 공동체의 한 계층에게만 '복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또한 부자들의 편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좇아 행하며 주님을 따랐던 부자들을 거론할 수 있다: 자신들의 소유로 전도여행 중의 주님 일행을 물질적으로 도운 갈릴리 여인들(8:1-3), 자신의 집으로 전도여행 중의 주님 일행을 초대하여 접대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10:38-42), 주님을 초대하여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서원한 예리고의 세리장 삭개오(19:1-10), 공회위원으로 개인적인 무덤을 소유할 만큼의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23:50-56).

만일 누가가 부자들에 대한 배려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부자들을 호의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부자들에 대한 긍정적 묘사는 결국 누가의 부자들에 대한 비판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의도한 긍정적인 비판임을 깨닫게 한다. 그렇다면 재물의 낭비, 축적, 그리고 집착을 비판하면서 그 결과로 소개한 사례들, 즉 어리석은 부자처럼 당일에 목숨을 잃는 것, 탕자처럼 거지가 되어 남의 종이 되는 것, 불의한 청지기처럼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 인색한 부자처럼 음부의 고통에 떨어지는 것, 부자관원처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잔치에 초대받았다가 거절함으로써 메시아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등은 결코 부자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과적 운명을 예시함으로써 각성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데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좀더 설명하면, 누가가 그 공동체 내의 부자들을 비판한 것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비판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쳐서 회개(悔改)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24:47; cf. 1:16-17; 3:8-9). 그렇다면 누가의 부자들에 대한 비판은 결국 그들에 대한 「목회적 권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누가는 가난한 자들만의 편이 되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편도 되는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또한 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음을 알게 된다. 아무 것도 없어 매 끼니를 염려해야 하는 거지들과 같은 가난한 자들만이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있어 넉넉하다 할지라도, 부자들 역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누가는 부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그 잘못에 계속 머무를 때 맞게 될 운명을 예시하여 지적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의 구주로

73) 쇼트로프와 슈테게만(Shottroff & Stegemann, *The Hope*, pp. 87-92) 누가를 “부자와 존경받는 사람들의 복음서 기자”로 묘사하면서 누가는 부자와 존경받는 사람들이 “회심하여”,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basileia 바실레이아)에 참여하기 위해 자원하여 가난하게 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교훈과 생활 방식에 일치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모티프와 연관된 자료들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쇼트로프와 슈테게만의 이 같은 견해에는 필그림도 동조하고 있다(Pilgrim, *Good News*, pp. 103-122), 참조 Ireland, *Stewardship*, pp. 175-180.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이다. 이것은 결국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만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보편성과 직결되어 있다.

※ 오늘의 적용점

1. 주님은 가난한 자만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들 또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부자들은 그 가진 재물로 인해 구원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이웃과 나누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